

民俗에 對한 小考

姜 奉 辰

(前大韓建築士協會長)

우리 倍達民族은 예로부터 衣食住는 勿論 日常의 生活樣式과 風俗習慣等에 있어 大陸的인 中國과도 다르고 海洋的인 日本과도 다른 固有한 文化를 形成해 내려왔다.

그것은 韓國이 이들 周圍의 나라들과는 根本的으로 氣候 風土가 다를뿐 아니라 民族形成過程에서부터 歷史的 또는 社會的 與件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近來에 民俗文化란 말이 갑자기 擡頭되고 또 固有한 우리 民俗을 發掘, 再現 또는 保存해야 한다는 議論이 漸次 高調되고 있을뿐 아니라 政府에서는 民俗村을 建設한다는 計劃도 發表한 바 있는데 이러한 一聯의 思潮는 民族文化의 傳統을 繼承하고 民族主体意識을 昂揚하기 爲한 必然的인 趨勢라고 생각되는바 다만 이러한 議論과 計劃等에 對한 概念과 方向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民俗學者는 勿論 社會輿論도 區區하여 是非를 論할만한 餘地가 多分히 있는 것은 無理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 × ×

民俗이란 用語의 定義에 對하여는 文化財保護法에 具體的으로 規定되어 있거니와 世界 各民族間에는 그民族의 形成過程에서부터 各其 다른 生活營爲와 精神活動을 계속하는 동안에 歷史的 趨勢와 社會的環境에 따라 그民族 固有한 生活文化로 土着하게 되어 一定한 어떤 形式으로 樣式化하게 된다.

民俗이란 이렇게 樣式化된 有形 無形의 모든 生活文化를 指稱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 ×

이렇게 볼때 民族固有한 民俗文化의 範圍와 種類는 廣大하고 多樣하여 一定한 限界를 짓기란 極히 困難한 問題이러니와 國民各者는 自己의 生活을 通하여 어릴때부터 몸소 皮膚로 느껴왔을 것이므로 어떤 것이 남의 나라와 다른 自己나라 固有한 文化인가를 大概는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古來로부터 白衣를 입고 溫突生活을 하며 敬神崇祖하고 相扶相助하며 風月을 즐기는 風習이 오늘날까지 連綿하게 傳해 내려오고 있는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傳統的인 生活文化인 同時에 우리의 固有한 民俗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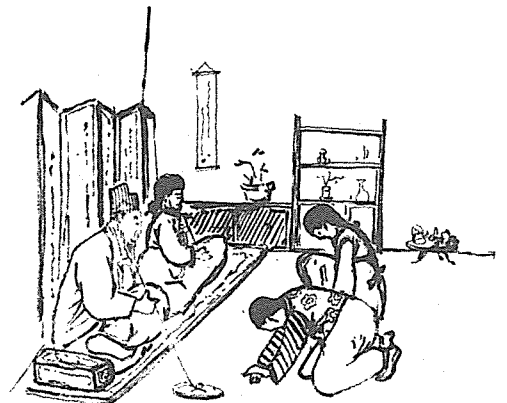


圖 1. 歲拜

설날에는 家廟祠堂에 茶禮를 지내고 아이들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설빔(歲底縑=歲粧)을 차려 입고 一家親戚長老에게 歲拜를 드린다. 그리고 설날은 반드시 흰떡(白餅)으로 떡국(餅湯)을 끓여 먹어야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고 한다. (圖1)

嚴冬雪寒에서 一陽來復하는 立春節에는 庶民의 住宅이나 市廛의 門楣等에 春聯을 붙여 春祝을 하는데 春聯의 文句가 立春大吉이요 建陽多慶이라, 父母千年壽요 子孫萬代榮이라, 掃地黃金出이요 開門萬福來라, 門迎春夏秋冬福이요 戶納東西南北財라, 春到門前增富費요 春光先到吉人家라...等等 참으로 德談吉語에 차있는 좋은 文句들로서 글귀 하나하나를 吟味하면서 主人이 나오기를 門밖에서 기다리는 나그네의 마음은 호뭇하기만 하였으리라 (圖2).



圖2. 春聯

三月寒食은 元旦, 端午, 秋夕과 더불어 古來로부터 四大名節의 하나로서 이날은 酒果脯醢를 장만하여 祖上의 幽宅을 찾아 省墓하며 또 杜鵑花로 花煎을 비져 먹기도 한다.

五月端午에는 菖蒲湯으로 沐浴을 하며 鞦韆놀이 를 하고 또 햇썩으로 수레떡을 만들어 먹는다 (圖3)

六月流頭에는 東流水에 머리감아 三伏의 疢머를 豫防하고 또 밀가루전을 부쳐 먹기도 한다.

七月百中(百種日, 中元日)에는 참외, 수박, 능금



圖3. 鞦韆

等 新果를 차려 祭祀를 지내고 三伏에는 개장(狗醬)으로 補身한다.

八月 한가위(嘉俳, 秋夕)는 우리民族의 가장 오래되고 重要한 名節로서 新穀으로 송편(松餅)을 비지고 祖上에게 祭祀하며 省墓한다.

十月은 상달(上月)이라 하여 시루떡(甑餅)을 만들어 成造神에 告祀하고 또 新穀과 果實로 祭物을 장만하여 祖上의 基에 一家門閥 함께 모여 時祭를 지낸다.

十一月은 겨울에 對備하여 燃料(長斫)를 準備하고 동치미(冬沈)와 김장(沈醬)을 담그며 冬至에는 팥죽을 써서 門板에 뿌려 除厄을 빈다.

十二月은 臘月이라 하고 셋달그믐날밤(除夕=除夜)에 아이들은 一家親戚長老를 찾아 묵은세배(拜旧歲)를 하며 온 집안에 방방마다 불을 밝혀 守歲(잠을 자지않은것)를 한다.

이러한 歲時風俗은 옛날부터 내려온 우리의 固有한 民俗임에 틀림없다.

× × ×

또 幅巾, 方冠이나 程子冠을 쓰고 唐鞋나 雲鞋를 신은 士大夫의 威嚴과 道袍를 입고 破笠(해진

갓)을 쓴 儒生의 초라한 모습, 外方男子의 눈을 避하여 장옷(一衣, 長衣)을 입고 종종걸음으로 지나치는 市井의 女人等 모두 사라져 버린 우리 固有한 衣生活의 斷片이다.

桃花酒, 杜鵑酒는 봄에 빚은 佳酒이며 平壤의 甘紅露酒, 黃海道の 梨薑膏, 慶州의 法酒, 全羅道の 竹瀝膏等은 그 이름 자체가 浪漫的이며 風流的이다.

朝夕밥상에 오르는 전골(稷笠), 萬平菜(녹두묵채), 雜菹(전복젓, 조기젓 등 것갈) 鯊魚膾 등은 지금도 좋아하는 반찬이며 智異山의 綠茶는 高麗時代의 金花鳥蓋, 翡色小甌, 銀爐, 湯鼎等 茶具를 發達케 하였고, 關西의 三登, 成川에서 産出한 담배는 西草라 하여 珍貴品으로 여겨왔다.

마땅히 發掘 再現하여 保存해야 할 우리의 固有한 食生活의 一面이다.

大典通編의 規定에 따라 王宮이나 佛寺以外에는 圓柱를 使用하지 못하였으며 常民의 집은 浮椽을 달지 못 하였다. 士大夫집은 소슬大門에 行廊體, 舍廊體, 本體, 別堂等을 갖춘 規模가 큰데 對하여 庶民의 집은 기둥을 알چه 制限하고 間數도 적게 하였다.

士大夫집의 방은 油紙를 발라 반질반질하게 윤을 내고 그 위에 壽福紋樣이 든 龍鬚草의 돛자리를 깔고 아랫목에는 襟褥長枕과 脇息을 놓았으며 文匣과 文房四具等 온갖 室內裝置를 갖추었으나 庶民의 집은 흙바닥 방에 直接 돛자리를 깔았거나 또는 명석을 깔기도 하였으며 더군다나 室內裝飾品은 전혀 있을리가 없고 방안에 시렁과 횃대를 매어 物品과 衣服等을 整理하였다.

市塵의 점방은 흙바닥과 마루바닥으로 區別하고 마루바닥에 선반을 매어 商品을 陳列한 것은 오늘날과 다를 바 없거니와 酒幕에는 火德앞에 酒母가

도사리고 앉아 오가는 酒客과 나그네에게 술과 웃음과 人情을 주고 받았으며 하룻밤의 安息處로 提供하기도 했다. (圖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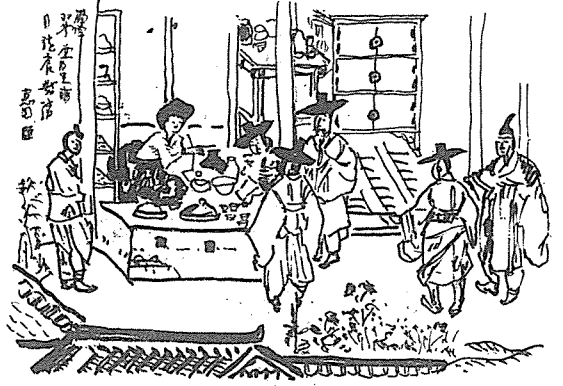


圖4. 酒幕

農家는 사리울타리 또는 흙담과 사릿문으로 外部와의 區別을 짓고 房과 마루와 부엌이 달린 本體外에 헛간, 외양간, 젓간(灰間), 廁間, 폐지울 등을 갖추고 헛간이나 마당에서 돌절구를 利用하여 방아를 찧었다. (圖5)



圖5. 搗糶

아직 오늘날도 大概 엿볼 수 있는 우리의 民俗的 住生活의 모습이다.

× × ×

봄과 가을의 花煎놀이, 名節 때의 山臺놀이, 굿

놀이(農樂)等에는 북과 징(錚), 팽가리等 樂器를 사용하여 音樂과 唱樂을 즐겼으며 윷놀이(擲擲), 투전놀이(投箋) 등의 賭戲도 즐겼다. (圖6)

× × ×



圖6. 農樂

또 新郎은 沙帽冠帶하여 白馬를 타고 新婦는 활옷입고 쪽도리 쓰고 四人轎 또는 八人轎를 타고시집갔으며 白馬와 轎子 앞에는 二雙 또는 四雙의 청사초롱이 先導하고 後面에는 많은 陪從이 뒤 따랐다.

우리 固有한 社會生活의 一端을 엿볼 것이다.

上述한바와 같이 우리의 民俗은 實로 各樣各色 할뿐 아니라 各地方에 따라 各各 特徵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全國民에 共通의이며 普遍性을 띠우고 있는 것은 다른 民族에 對하여 充分히 자랑할만 하다. 그러나 오랜 歲月이 經過되고 文明이 高度로 發達한 오늘날 이러한 固有民俗이 漸漸 忘却되어 가고 滅失되어 가는 아쉬움이 없지 않은 데다가雪上加霜으로 近者에 와서 새마을 運動이 推進됨에 따라 一部地方에서는 서낭당, 장승, 堂집 等 重要한 民俗資料가 많이 撤去 當한 點等을 考慮할 때 將來의 民俗文化保存을 爲하여는 全國을 調查하여 比較的 民俗保存이 잘된 民俗部落을 選定育成하는 한편 風水地理와 森林景觀이 좋고 自然的이며 廣濶한 一定地域을 選擇하여 各地에 散在한 모든 民俗資料를 이 地域에 高루 再現配置하고 地域內에 希望者를 選擇入住시키되 入住民은 古來의 生活方式대로 實生活를 營爲할 수 있는 條件을 갖춘 民俗村이 出現한다면 多幸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이럴 경우 入住民은 民俗文化傳承保存이란 使命感과 犧牲的인 覺悟가 必要할 것이며 政府는 이들에 對하여 財政的인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